매일묵상
2022. 6월호

발 행 인 | 조 재 호
집필/편집 | 교역자실
진 행 | 신앙운동팀
고 척 교 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Tel. 02.2686.5871
www.gocheok.or.kr

매일묵상 | 2022 06

고척교회

매일 묵상

2022.06

Photo | 김충신 집사(소망-5)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2022년

주제 성구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6월 그라티아 갤러리

[모멘토]

목연여지 작가

개인전 2회 및 국내외 다수 전시
한국현대미술작가 연합회 부천시지부장

모멘토 시리즈 1-12로 구성한 이번 개인전은 연상된 화면의 짧은 순간들을 접사화한 이미지를 즉흥적 휘젓기로, 파도의 한순간, 꽃피움의 한순간, 무대 위의 한 장면, 낯선 오브제, 오후 4시경의 햇살 한 조각간 어둠 속의 불빛, 지난 기억의 한 자락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구현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의 낯설고도 익숙한 순간들이 스프링처럼 기지개를 켜듯 외부로 잠시 튕겨져 나왔다가, 봄날에 잠시 내린 낯선 눈처럼 찰나의 모습들은 봄 햇살에 눈이 녹듯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날에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때를 기다립니다.

* 6월 카페 '그라티아'에는 목연여지 작가의 그림을 전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 성경
매일 찬송
매일 기도
매일 감사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2022년 표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신16:11, 막1:15, 행2:47)

2022 매일묵상 6월

역대상 1-29장, 역대하1-24장

목차

기도를 배우다 03

6·7월 달력 04

6월 [오늘의 말씀] 06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07

교회의 사작, 성령강림절 08

역대상 해설 10

매일묵상, '위드유'가정예배 20, 34, 50, 64

역대하 해설 44

이 달의 공연 추천 | 『뮤지컬 세례요한』 74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 김규린 청년 (청년공동체) 75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디아코니아(5) | 봉사부-데코팀 78

선교지에서 온 편지-'방글라데시' | 박성진, 선호영 협력선교사 80

교회소식 83

예배안내

부록

- 가정예배 실천표
- 여호와께 감사하세
- 가정예배 암송구절 카드

그라티아 갤러리 | 목연여지 작가의 [모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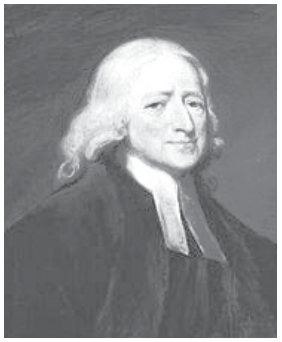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 GOCHEOK PRESBYTERIAN CHURCH

기도를 배우다

고난의 종

오, 멸시받고 거부당하셨던 고난의 종이시여,
제가 친구들에게 모욕당하거나
윗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을 때,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다음,
제가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아버지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 안에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김영봉 엮음,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 선집], IVP 2004, 254.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영국의 목사, 감리교의 창시자)

영국의 종교개혁자, 신학자.
사람들에게 종교적 체험과 성결한 생활을 역설하고,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대규모적인 신앙 운동을 전개하였다.

6

2022
애국의 달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시 22:28)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 지방선거	2	3 • 단오	4
5 • 성령강림절	6 • 망종 • 현충일	7	8	9	10	11
12 • 삼위일체주일	13	14	15	16 • 전도학교 개강	17	18
19 • 제20차 천사운동	20	21 • 하지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 DO LIST

- ☐
- ☐
- ☐
- ☐
- ☐
- ☐
- ☐
- ☐
- ☐
- ☐

7

2022
교육의 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 6:7)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월삭새벽기도회	2
3 • 맥추감사절	4	5	6 • M-12/L-12 상반기 종강 및 자율모임 시작	7 • 소서	8	9
10	11	12	13	14	15	16 • 초복
17 • 교회학교 여름사역 파송예배 • 제헌절	18	19	20	21	22	23 • 대서
24 31	25	26 • 중복	27	28	29	30

TO DO LIST

- ☐
- ☐
- ☐
- ☐
- ☐
- ☐
- ☐
- ☐
- ☐
- ☐

6월 [오늘의 말씀]

1일	역대상 1-2장	16일	역대상 29장
2일	역대상 3-4장	17일	역대하 1-2장
3일	역대상 5-6장	18일	역대하 3-4장
4일	역대상 7-8장	19일	주 일
5일	주 일	20일	역대하 5-6장
6일	역대상 9-10장	21일	역대하 7-8장
7일	역대상 11-12장	22일	역대하 9-10
8일	역대상 13-15장	23일	역대하 11-12장
9일	역대상 16-17장	24일	역대하 13-14장
10일	역대상 18-20장	25일	역대하 15-17장
11일	역대상 21-22장	26일	주 일
12일	주 일	27일	역대하 18-19장
13일	역대상 23-24장	28일	역대하 20장
14일	역대상 25-26장	29일	역대하 21-22장
15일	역대상 27-28장	30일	역대하 23-24장

매일묵상을 위한

드라마바이블 활용

1. '드라마바이블'이란?

드라마바이블은 오디오성경으로 100여 명의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상급 연예인과 국내 최고 작곡가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 다윗과 모세는 이재룡과 장광 배우를 비롯하여 권오중(요엘), 양준모(이사야), 엄지원(에스더·룻), 예지원(마르다), 우희진(하와), 박시은(마리아), 최윤영(마리아) 등 크리스천 배우들도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또, 배우 윤유선과 아나운서 최윤영, CCM 가수 송정미 등이 시편을 낭독하는 등 총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 배우가 기꺼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최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오디오로 접할 수 있습니다.

2. 드라마바이블 활용법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하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성경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와 [고척교회 앱]에서 [매일묵상-드라마바이블]을 클릭하면, ① **매일묵상 읽기본문에 따라서 드라마바이블을 들을 수 있고,** ② **2022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읽기표와 '드라마바이블'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척교회 홈페이지▷ **www.gocheok.or.kr**
고척교회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Google Play)에서
'고척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여 실행

1. 유래

성령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수장절 칠칠절 중 칠칠절과 같은 날입니다. 칠칠절은 누룩을 없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五旬節)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성령강림절 철야제를 성탄절, 부활절과 같이 성대하게 지냈으며 특별히 철야제는 세례와 함께 행해지며 성령 세례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2. 성경적 배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행 2:1) 그리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제자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행 2:2-4) 이렇게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날을 성령강림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 색깔과 장식, 음악과 전통

1) 색깔

성령강림절의 색깔은 기쁨과 생명,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불은 정화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자 세상에 오셨으며(마 3:11) 오순절에 성령님의 모양 또한 불꽃 모양의 갈라진 혀로 나타나셨습니다.(행 2:3) 그래서 성령강림주일에는 성령의 불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의미로 붉은색이 사용되었습니다.

2) 장식

성령강림주일에는 교회 지붕에 붉은 장미꽃을 뿌리거나 예배당 주변을 나뭇가지와 꽃으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흰 비둘기를 장식으로 사용하거나 성령의 세찬 바람과 성령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나 풍선을 예배당 벽이나 천장에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붉은 꽃과 식물로 장식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생명의 쇄신, 따뜻한 여름의 도래, 첫 번 성령강림과 이후의 교회 성장을 상징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장미를 기독교를 상징하는 꽃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장미는 그리스도의 피에서 유래된 은총과 자선, 순교를 상징합니다.

3) 음악과 전통

유럽의 많은 교단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연상시키는 트럼펫이나 금관 앙상블로 성령강림주일 예배 찬송 반주와 특별한 순서를 가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회중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봉독하는 관습도 있습니다.

4. 나가는 말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충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과 함께 여러 가지 전통과 풍습으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기억하며 성령강림절을 중요하게 지켜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와 충만,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성령강림절을 통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저자와 연대

역대상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역대상 안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제사장이며 학사이며 서기관이었던 스가랴의 아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끝맺는 말과 사건이 에스라의 서론 및 첫 사건과 서로 연결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작 연대는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볼 때에 B.C. 450-40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기록 연대를 고찰해 보면 먼저 본문에서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반포한 유다인 포로귀환 허가 조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주전 537년 유대인들을 이끌고 1차로 귀국한 스룹바벨과 주전 500년 경 인물인 그의 두 손자 블라댜와 여사야가 언급되어 있음을 볼 때 역대기는 적어도 주전 500년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다시 돌아온 때가 주전 458년이므로 이 연도를 넘어설 수 없기에 본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경으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2. 목적과 배경

역대상의 히브리 성경 명칭은 "디브레 하야밈"입니다. 각 시대의 사건들, 또는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책이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펼쳐진 사건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집약함과 동시에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역대기서가 쓰이던 당시는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재확립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열왕들의 영광을 기록하면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3. 내용과 구조

1)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1:1-9:44)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로 시작하여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12지파와 포로귀환자들에 대한 기록은 포로 이전 이스라엘과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포로 귀환자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2) 다윗 왕의 통치(10:1-29:30)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확립한 다윗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B.C. 586년의 바벨론 포로라는 결정적 패망 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만든 큰 원동력이었으며, 다윗 언약을 받았던 바로 그 장본인이자 다윗 왕조의 첫 왕이기도 했던 다윗의 일대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어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 등극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던 일, 다윗의 승리, 성전 건축 관련 준비, 다윗의 말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

6월

01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기억하신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2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1-2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1-2장

1장에서는 아담에서 시작되어 아브라함까지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한 에서에서 나온 에돔 족속의 족보와 에돔의 왕과 족장들이 열거됩니다. 2장에서는 야곱에서 시작하여 다윗에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지에 대한 메시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1:28-42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계보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고, 에서보다 야곱일 텐데 성경은 장자였던 이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밖에 있어 보이는 족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녀의 모든 자녀들을 세세토록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를 잊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두시고 계속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이스마엘과 에서를 외면치 않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족보에 기록하고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자녀 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2. 실로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찬양의 능력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3.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목

6월

02

하나님을 만나면 존귀한 자가 된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84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3-4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3-4장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가계와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분열된 남유다의 가계가 기록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름까지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유다의 자손들을 기록하였고, 이후 시므온 지파의 가계와 그들의 거주지 및 이동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4:9-10

4장부터는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족보를 보면 보통 '누구의 아들'처럼 이름만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 자손을 언급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다른 이름과 비교하여 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야베스의 삶과 그의 기도를 보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도전과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고 환난 중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고통을 영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존귀한 인생이 되며, 승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고통과 환란을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경험이 있다면 기록해 봅시다.

* 존귀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요즘 내가 솔직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주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주일2부 찬양팀의 사역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찬양팀이 되게 하소서.
3. 이 나라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소서.

금

6월

03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19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5-6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5-6장

5장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등 요단 동편 세 지파 후손들의 소개가 등장합니다.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 한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아픔도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관해 기록합니다. 레위의 아들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언급하고, 이후 아론의 계보 이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비록 이들이 대제사장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6장에서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계보도 등장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5:18-26

성경에서 강대국들의 이스라엘 침범에 관해 살펴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앗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승리를 맛보는 지파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할 때 그들은 패망을 맛보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요단 동편 지파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승리와 실패를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승리와 실패의 경험을 하곤 살아갑니다. 승리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인생을 살다보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신앙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주일3부 찬양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을 올리는 입술에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3. 북한 동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을 놓지 않게 하소서.

토

6월

04

당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2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7-8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7-8장

7장에서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북 이스라엘 지역에 위치해 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정체제 이전의 베냐민 지파 족장들이 언급되었고 이후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가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한 장에 걸쳐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귀환 이후 그들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7:1-5

잇사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분열된 후 북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 지내왔습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야곱의 예언대로 잇사갈 지파는 용감한 장사들이 풍부하였고, 그 수효도 엄청났습니다. 유다, 레위, 요셉 지파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잇사갈 지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나지 못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작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펼칠 비전의 사람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잇사갈 지파처럼 때로는 스스로가 작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 스스로가 작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의 기도

1. 작고 평범해 보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주일 오후 찬양팀의 모든 찬양팀원들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3.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의 평안과 평화를 허락하소서.

왜 의심하느냐

찬 양

찬송가 406장

말 씀

마태복음 6장 22-33절

나누기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자 제자들은 "유령이다"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물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은 즉시 잡아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며 믿음이 작은 자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질 문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언제입니까?

기 도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가족 중 한 사람의 눈을 수건 등을 사용해 완전히 가립니다. 눈을 가린 사람의 손을 붙잡고 부엌에 가서 물을 따라 마시도록 인도해 보세요. 물을 마신 후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세요.

암송구절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6월 5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6월
06

여호와께 묻는 사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66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9-10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9-10장

역대상 1장에서 "아담"으로 시작한 족보이야기는 포로기 이후 첫 예루살렘 주민들의 명단까지 기록하며 9장에서 마무리 됩니다. 이 족보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10장에서는 왕정이 세워진 처음을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10:13-14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이유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무능했는지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범죄 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묻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최근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유익을 나누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순간 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2. 수요 오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그 분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랑을 행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화
6월
07

인정받는 사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11-12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11-12장

11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과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사울 왕을 피해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을 도운 용사 이야기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의 동족들도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만이 넘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12:38-40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11:2). 다윗 왕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베냐민 사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사울 왕의 동족들조차 다윗의 편에 섭니다(12:1-2). 그를 따르는 군사도 삼십만 명이 넘습니다(23-37).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40).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사람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인정을 받을 때 주어지는 기쁨에 대해 나누어봅시다.

* 다윗 왕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수요 오후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귀한 찬양팀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소서.

수
6월
08

주체할 수 없는 기쁨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5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13-15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13-15장

13장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웃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오벧에돔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14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블레셋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15:25-29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다윗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에는 궤를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는 민수기의 규례대로 레위인 중에 책무를 맡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합니다(11-15). 다윗 왕과 이스라엘은 웃사의 죽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니 다윗 왕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품격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상태로 춤을 춥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최근 가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때의 감정을 표현해 봅시다.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 때 느꼈던 생각을 나누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소서.
2. 금요성령집회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소서.
3. 우리 지역사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도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소서.

목

6월

09

영원히 견고한 집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00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16-17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16-17장

16장에서는 다윗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 궤에 대한 복무 규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 왕의 감사 찬송이 이어집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다윗의 감사기도가 이어집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17:1-14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온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음을 한탄합니다(1).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세울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합화에 비할 수 없습니다(눅12:27).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다윗의 집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며, 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한 집으로 세우십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행하셨던 일이 있으십니까? 그 때의 마음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 다윗에게 그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당신의 집 또한 영원히 세우시겠다 하실 때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집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영원한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2. 행복사역부가 행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행복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소서.
3. 세계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슬픈 마음이 있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금
6월
10

여호와께 드립니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18-20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18-20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 기금과 자재로 지정해둡니다. 하나님의 집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9장에는 다윗 왕이 암몬과 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에는 블레셋의 엄청난 용사들과 맞서 싸워 이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만 엄청난 블레셋의 용사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는 그의 용사들 또한 그들을 압도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18:9-13

다윗 왕에게는 더욱 뚜렷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17:12). 원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다윗이었지만, 더욱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전에도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더욱더 마음 다해 여호와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11). 다윗 왕에게 다른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이루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성전 건축 기금과 자재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은 주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받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드릴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진심을 담아서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2. 희망의 복지재단이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와 사회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게 하소서.

토

6월

11

진심을 담은 부탁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08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21-22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21-22장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21:7).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21:8). 2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할 것을 부탁합니다(22:19).

묵상할 본문 I 대상 21:17-19

다윗 왕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때가 되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비전을 공유하며, 진심을 담은 부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가 준비한 기금과 재료, 사람들, 받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어린 솔로몬을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5).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진심으로 일하는 다윗의 모습니다.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진심을 다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탁이 의미심장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구하며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19).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부탁이라도, 주님의 일은 주님의 감동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부탁하십니까? 부탁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누군가에 진심을 담은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누군가 중요한 일을 부탁했는데, 마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사역을 진행할 때에 늘 진심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 주소서.
2. 사회봉사센터와 날마다 동행하여주시고, 그 손길들 마다 하나님의 진심이 전해지게 하소서.
3.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진심어린 사랑이 전달되게 하소서.

짐을 맡으시는 하나님

찬 양 찬송가 337장

말 씀 시편 55편 22절

나누기 우리는 끝까지 내 짐을 내가 지겠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짐을 지기 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습니다. 이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질 문 내가 힘겹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기 도 무거운 짐을 맡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 맡기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나에게 현재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는지 가족이 서로 이야기한 후 종이에 적어보세요. 적은 종이를 찢은 후 "예수님 나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습니다"라며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세요.

암 송 구 절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월 12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6월
13

레위인들의 직무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8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23-24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23-24장

2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과 건축가들을 준비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주도할 사람들과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연로한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한 후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준비하며 성전 건축과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23장에는 레위인들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사장들의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23:1-32

장차 짓게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한 다윗의 준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은 성전 시대의 예배를 고려하여 수고할 사람들의 배치와 그들의 일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다윗은 성전 시대, 곧 새로운 시대의 예배가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들을 예측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서 레위인들의 직무가 전환되어야 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합니다.(대상 23:25-26) 계속 이동해야 하는 성막에 대한 돌봄이 아닌 하나님의 거하심을 상징하는 성전과 관련하여 레위인들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필요한 일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레위인들의 나이를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레위인들의 조직과 직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는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 다윗은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하여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고려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2. L-12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리더, 헬퍼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화
6월
14

하나님을 찬양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25-26장

오늘의 말씀 I 대상 25-26장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레위인들 중에 찬송 맡은 자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 맡은 자들은 먼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세 가족들로 구분되며 이들의 아들들을 책임자로 해서 24반차로 나눈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조직구성의 기록들을 보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하는 자들의 활동에 일정한 질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을 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25:1-31

찬송 맡은 자들의 음악은 하나의 예언으로 여겨졌습니다. 역대상 25장 1-3절에서 개역한글성경이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예언하다'로 번역될 수 있으며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 왕의 '선견자'(대하 29:30, 35:15)로 언급되는데, 찬양 활동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송 맡은 자들이 일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예언적 기능을 담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 의식에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심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의미에서 예언적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즉, 찬양하는 자들은 예배에서 시편을 노래하거나 영감된 계시를 통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복과 용서는 물론이고 그들의 기도와 여호와의 응답 등을 전달하는 예언적 직무를 행했을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찬송하는 자들의 조직과 구성은 어떠했습니까?

*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 찬송 맡은 자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습니다. 찬양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찬양과 좋아하는 이유, 찬양을 통해 은혜받았던 경험을 나누며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2. M-12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 마을장,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점차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될 수 있게 하소서.
3.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인도하소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도우소서.

수
6월
15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 오늘의 찬송: 찬송가 8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27-28장

오늘의 말씀 I 역대상 27-28장

여호와의 일과 왕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으로 26장이 끝나고 27장부터는 군사와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직이 기록됩니다. 이는 성전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조직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전 문지기에 대해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과 군사적 질서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근본적으로 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상 27:1-15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시대, 곧 새 언약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준비와 자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좋고 화려한 예배장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요 4:23-24)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건물과 외형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27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본문을 통해 성전의 예배에 관심을 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보고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2. 남선교회 연합회를 이끌어가는 헌신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3.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대한민국과 세계열방을 위해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목

6월

16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67장
* 오늘의 말씀: 역대상 29장

오늘의 말씀 I 역대상 29장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자원하여 참여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의 임무가 성전건축 이었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정치적인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과 솔로몬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온 백성들이 자원해서 참여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심을 기억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필요했고 다윗은 먼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범을 보입니다.

묵상할 본문 I 역대상 29:1-19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권면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인간적인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설계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진 것 또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본문 속 다윗의 연설과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다윗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은 헌신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헌신의 정도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위한 헌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헌신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소서.
2. 여전도회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종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3. 한국교회와 전 세계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돌리는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소서.

1. 저자와 연대

역대기서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밈'(그 때의 말씀들)이라는 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70인 역에서는 역대기를 '빠진 것'이라는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서술에 있어 역대기 저자는 본문의 약 50%를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나오는 본문들을 따랐거나, 사무엘서-열왕기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 넣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아직까지 많은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동일저자로 보는 견해와 성전에 관심을 가졌고 제의를 집전하는 익명의 레위인 저자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학문적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역대기의 저작 연대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주전 5세기 초부터 단계적으로 쓰였다는 학설이 좀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 목적과 배경

역대기는 포로후기 귀환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역사서들 중 하나입니다. 포로후기 귀향 공동체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성전 파괴와 더불어 국토의 황폐화, 혼합된 제의 의식, 민족의 정체성 상실 등 심각한 종교적, 사회적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조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소의 중앙화라는 두 기둥을 통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가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조의 회복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연합입니다.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 배경은 포로기와 포로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포로기의 역사적 상황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왕 여호야긴과 궁중의 왕가, 귀족 및 사회의 지도계층들을 포로로 잡아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포로기는 이스라엘에 있어 정신적, 종교적인 위기의 시기로 기록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도성은 초토화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고레스왕의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포로후기의 역사적 상황도 이어지게 됩니다.

3. 내용과 종합적인 개요

역대기는 포로후기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선민의식과 야훼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다윗과 그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갈 솔로몬과 그의 성전건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나타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 부정적인 구절이 모두 삭제되어 있고 좋은 점들이 저자의 상상력까지 동원되어 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역사서를 수정하면서까지 재해석한 역대기 저자의 목적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던 야훼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의 역사서에는 사울 왕을 대표로 하는 북 이스라엘이 아닌, 다윗을 대표로 하는 유다만이 참 이스라엘이며, 이방종교와 혼합된 야훼 종교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통해 다윗 왕조의 영광과 영원한 약속을 회복하자는 강력한 개혁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금
6월
17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02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1-2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1-2장

솔로몬은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는 모세 시대에 브살렐이 만든 놋 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일찍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회막과 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곳에는 사독계열 대제사장이 회막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1:1-13

솔로몬이 희생 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천 마리의 짐승을 드리기 위해 예배자들이 들였을 정성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어떠한 지혜를 구했습니까?

*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드렸던 일천번제의 과정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기쁨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감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소서.
3. 세계 선교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소서.

토

6월

18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 오늘의 찬송: 찬송가 540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3-4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3-4장

역대하 3장과 4장은 성전구조와 성전기구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구조적으로 들여다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제사장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시작되어 지성소에서 마감됩니다. 이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예물과 번제물을 드림으로 시작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3:1-17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과 용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성전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복잡한 절차와 율법에 따라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성전과 그 안의 물건들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갈등과 차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2.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3. 국내외 선교지를 축복하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풍성한 말씀과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넘치는 기쁨으로

찬 양 찬송가 321장

말 씀 고린도후서 8장 1-5절

나누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힘을 다해 후원해 어려운 성도를 살피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인색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합니다. 또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은혜 가운데 성도의 풍성한 나눔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질 문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후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후원하며 나눈 적이 있습니까?

기 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후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보세요.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월 19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6월
20

솔로몬의 기도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0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5-6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5-6장

솔로몬이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6:12-42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며 백성들도 '주의 백성'이라 인정하며 겸손히 기도합니다(21절).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으로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성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길 간청합니다.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윗의 자손에게 견고한 왕권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가뭄이나 재앙이나 질병으로 고난 받을 때 죄를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해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용서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철저히 겸손으로 나아갔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 솔로몬의 기도할 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2. 고척동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방글라데시 엄명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에버그린 학교 학생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키시고 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소서.

화
6월
21

성전 낙성식

* 오늘의 찬송: 찬송가 9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7-8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7-8

7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 솔로몬은 하맛소바를 점령하고 여러 성들을 건축했으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자들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절기를 준수하며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7:1-10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를 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엎드려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하심이 나타나자 이를 본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낙성식을 거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 때에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던 것처럼(10절) 우리들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과 북한 땅에 하나님 함께 하사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3. 몽골리아의 정홍재 선교사님과 가족을 기억하사 성경방과 나비독서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분점 5000개가 몽골에 세워지게 하소서.

수
6월
22

북쪽지파들의 배반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40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9-10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9-10

9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명성은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이를 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왕의 지혜와 영화를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9장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르호보람은 세금과 노역을 경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하자 북쪽 지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배반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10:1-19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계속되는 건축으로 인해 무거운 세금과 힘든 노역에 시달렸지만 솔로몬의 힘과 권위 때문에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 지혜 있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들고 혈기와 야망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따라 복을 주셔서 솔로몬 왕국을 영화롭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나누시고 북쪽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채 북쪽 지파의 제안에 강압적으로 대응하다 결국 나라가 나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풍요와 번영을 이루려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무엇을 위해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북쪽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 르보호암이 북쪽 지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어떤 일을 하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이루게 하소서.
2. 조재호 위임목사님과 함께 하사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우크라니아 임광택 선교사님과 함께 하사 세우신 신학교와 센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민족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목

6월

23

여호와를 찾는 자들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01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11-12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11-12

11장에서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워 갈라진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듣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후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지역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삼년 동안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12장에서 나라가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스마야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11:1-17

르호보암은 군사를 동원해 나라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비록 승리는 했더라도 더 깊은 갈등 가운데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의 원인인 솔로몬의 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를 세우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에 의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자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신앙을 위해 고향과 생업을 버리고 내려온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삼년 동안 유다를 도와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 신앙을 위해 고향과 생업을 버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교역자실 가운데 함께 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3. 일본의 강장식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사 지역 사회 선교와 봉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소서.

금
6월
24

우리를 도우소서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42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13-14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13-14

13장에서 아비야가 왕이 되어 3년을 다스렸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사 전력에는 차이가 났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의 복병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4장에서 아비야의 뒤를 이어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 우상을 파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14:1-15

아사는 왕이 된 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파괴하고 멀리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어긋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직을 행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를 세우고 성벽을 쌓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고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지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후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구스의 병력 앞에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아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 줄 이가 하나님 밖에 없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쟁에 대비했지만 승리는 인간의 준비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군대 58만명 앞에 구스 군대 100만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평화로운 시기에 아사 왕이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정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사왕처럼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1.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은퇴 항존직분자들과 함께 하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3. 파라과이 신형광 선교사님과 볼리비아 정유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소서.

토

6월

25

끝까지 충성하라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33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15-17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15-17

15장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사람 오뎃의 말을 듣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남아 있던 우상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또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기로 결단합니다.
16장에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해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합니다.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라마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자 옥에 가두었습니다.
17장에서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은 점차 강성해졌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16:1-14

아사 왕 16년에 북 이스라엘 바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며 남쪽 국경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미 바아사는 아람왕 벤하닷과 조약을 맺었기에 남쪽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벤하닷에게 보내며 바아사와의 조약을 파기하고 공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벤하닷을 상대하기 위해 바아사는 라마에서 철수했고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사의 정책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돈이 들기는 했지만 바아사를 물러가게 했고 이때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책망합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는 벗어났으나 장기적으로 유다가 아람으로부터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한때 여호와를 찾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종교개혁을 일으켜 유다의 정체성을 굳게 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사 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아사왕 이었지만 말년에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봅시다.

오늘의 기도

1.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시무 항존직분자와 함께 하사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3.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과 필리핀 서림교 선교사님과 함께 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찬 양 찬송가 270장

말 씀 이사야 55장 6-7절

나누기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며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며 돌아설 때 용서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질 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 위해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 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잘못한 일로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 천 한주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가족 구성원이 각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세요. 한주 동안 기도 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보세요.

암송구절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6월 26일

주일 설교 NOTE

- 제목
- 본문
- 내용
- 적용 / 실천과제
- 기도제목

월
6월
27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 오늘의 찬송: 찬송가 425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18-19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18-19장

18장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나라가 평강을 이룰 때에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아합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제외한 선지자 400명의 거짓 예언을 듣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허락하셨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하여 아합이 전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아합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장에서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예루살렘에 온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아합을 돕고 사랑한 것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예후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 온 유다 성읍에 재판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과 성심으로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18:28-34

아합이 전쟁터에는 나가지만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 변장을 하고 군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아합은 해가 질 무렵에 죽습니다. 우리의 약은 꾀로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코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이루려 고집을 부려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선견자 예후의 책망과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로 서길 기도합시다.

오늘의 기도

1.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교회 직원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땅에 희생과 아픔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회복되게 역사하소서.

화
6월
28

하나님께 속한 전쟁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57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0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20장

20장에서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사해쪽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 친히 대적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이 서로 살육하게 되고, 유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3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본문은 역대하 17장부터 시작된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은 평생 동안 전반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않아서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후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연합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배를 파하십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20:1-11

큰 위기를 맞은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 맞설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리시라 약속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과거 출애굽 때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해달라고, 지금 적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 한다고, 우리는 막을 힘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지금 나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튜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을 검색해서 들으면서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여호사밧처럼, 내 어려운 문제를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체들에게 내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합시다.

오늘의 기도

1.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영아부 어린아이들이 밝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과 영아부에서 사랑을 많이 받게 하소서.
3. 남북간 긴장과 대치가 완화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평화와 협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소서.

수
6월
29

여호람의 악한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

* 오늘의 찬송: 찬송가 313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1-22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21-22장

21장에서 여호사밧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여호람은 아우들과 방백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고, 그 대신 에돔과 립나가 유다를 배신해서 독립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다윗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여호람은 여호아하스 외에 모든 아들과 아내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2년 만에 죽었습니다.
22장에서 여호람이 세상을 떠난 후 왕이 된 아하시야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을 공격하지만, 결국 요람과 함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아달랴가 유다의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하지만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살아남습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21:12-20

여호람은 모든 아우들과 아우들을 지지하는 방백들을 죽여 왕권을 강화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차례나 경고를 주셨지만 여호람은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그의 왕권은 8년 밖에 되지 않았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내가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또한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최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느껴져 택한 것(비성경적인 삶, 우상숭배)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은 여호람을 징계하시기 전, 엘리야의 편지와 전쟁과 질병을 통해서 여러차례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회개하길 원하신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회개의 영을 구합시다.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하소서.
2. 유아부 교역자, 교사, 부모가 한마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때, 인격이 형성 되는 이 시기 유아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성품들로 가득 채워주소서.
3.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투기문화가 줄어들고 건강한 경제활동이 존중받게 하시고, 청년들이 취업할 문이 넓어지며,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소서.

목

6월

30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

* 오늘의 찬송: 찬송가 288장
* 오늘의 말씀: 역대하 23-24장

오늘의 말씀 I 대하 23-24장

23장에서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하고 온 나라를 공포 속에 빠뜨린 지 7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은 후에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어서 여호야다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고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이 세운 성전 예배와 일상을 회복합니다.
24장에서 요아스는 7세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삶은 그를 죽음에서 구하여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과 사후에 크게 달라집니다. 여호야다 생전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려고 결심하고 성전세를 거두게 합니다. 모든 방백과 백성이 기쁘게 참여했고, 그 돈으로 성전 수리를 하고, 남은 돈으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물건들을 만듭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해 심판하십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묵상할 본문 I 대하 23:16-21

제사장 여호야다의 신앙개혁으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복음의 본질은 철저하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들은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지금까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고 인습과 구습은 개혁해 나가며 교회를 갱신해 왔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고척교회 부서와 사역에서 새롭게 되어져 나아야할 것들을 생각해 봅사다. 더 나아가 가정과 목장 공동체도 더 아름답게 발전된 모습들을 그려보며 묵상해 봅시다.

Thanks Diary

삶의 적용과 물음

* 요아스왕이 멘토 여호야다 사후에 신앙을 잃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 내 인생에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또한 지금 나는 누구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많아지게 하소서.
2. 유치부 아이들이 부모님과 교역자와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게 하소서.
3.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성숙하여 많은 나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각 분야에 세워주신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달의 공연 추천

뮤지컬 세례요한

당신은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괴로운 나날을 보낸 적이 있나요?
온 맘을 다해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고 뒤에서 음해하고 고의로 큰 상처를 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커다란 배신감과 절망, 분노에 휩싸여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은 이럴 때 왜 침묵하시는가요?"

인생에서의 절망과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께 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뮤지컬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고 기쁨이 있는 기독교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세례요한〉은 영혼을 울리는 창작 음악, 은혜와 힐링의 무대를 선사하며 진한 감동과 여운,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공연입니다.

"6월에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와 희망, 힐링을 맛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실 때
너무 조금 보여주신다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철저히 믿고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 일시 : ~ 22년 6월 26일까지
- 장소 : 북촌나래홀
- 관람연령 : 만 12세 이상
- 공연시간 : 90분
- 예매가능시간 :
  전일17시(월~토 관람 시)까지
  전일 11시(일요일 관람시)까지
- 예매처:인터파크티켓
  (https://tickets.interpark.com/goods/21005251)

나의 매일묵상 이야기

4~6월 매일묵상으로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특별 기고합니다.

• 김 규 린 청년(청년공동체)

이사야 43장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본문의 청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사실 야곱은 내 기준으로 바람직한 인생을 산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한 편에 든다. 형을 속이고 도망친 뒤의 행적들이 안타까워서 어딘가 맘껏 비난하기도 애매한, 그래서 왠지 더 비겁하게 느껴지는 인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하나님을 이겼다)'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게 이어진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자신이 없을 때가 많

다. 주변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도 잘살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든다. 그런 나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이사야 43장의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됐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한 명 한 명 창조하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경건한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한 행동, 할 행동들도 역시 알고 있으시다.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꾸만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려 한다. 선택과 구원의 주권은 나의 실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다.

지난달 '위드유 가정예배' 실천표 소감문

조금씩 가정예배 습관이 자리잡아가서 감사합니다.
– 주신혜 집사 (섬김–17)

가정의 일체감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고재선, 김영자, 박민규, 고혜린 집사 (은혜–11)

우리 가정예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이은경 집사 (기쁨–14)

*** 그 외에 실천표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김용갑, 이숙진 집사 (사랑–36), 김태연(고등), 김하연(소년)
심오섭 집사 (사랑–29), 정애희 권사 (사랑–39)

* 모든 성도가 함께 가정예배를 실천합시다.
1인 가족이나 부부도 [매일묵상]의'위드유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드리고 실천표를 꼭 제출해 주세요.

강단 장식을 하며 받은 은혜

• 류 미 라 집사(섬김-34)

〈저는 작은 교회에서 강단 꽃꽂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사정으로 인해 고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금요성령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고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데코팀에서 사역한지가 5년째가 되어갑니다.

낯선 곳에 와서 처음에는 사역으로 인해 긴장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좋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의 만남이 더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의 절기와 매주 강단 장식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절기 때가 돌아오면 매번 팀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작품을 구상하고 새벽시장을 다니는 것은 데코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같아서 늘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매번 새벽에 운전대를 잡아주시는 집사님, 여기저기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테코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보시며 "예쁘다. 멋지다. 잘했다." 칭찬해주시는 성도님들의 격려로 또한 힘을 얻습니다.

절기 꽃꽂이 외에도 화분으로 장식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의 예쁜 작품이 나옵니다. 화분으로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강단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데코 가족 모든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기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번 사역 신청을 할 때는 이번에는 내려놓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또 다른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훤하고 번듯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이 늦은 밤 집에서 편하게 무장 해제하신 친근한 모습,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언제든 저희 화상 모임에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척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힘들 땐 서로 보듬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데코팀 한분 한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저곳을 예쁘게 장식하는 사랑하는 우리 데코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코팀!
함께 가요! 파이팅!!

"방글라데시"

• 박 성 진, 선 호 영 선교사(협력 선교사, 두란노미션)

깨몬아첸!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는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진, 선호영 가정입니다. 한비, 윤비, 찬비, 단비 이렇게 3남 1녀를 선물로 받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 덕분에 1기 사역(6년)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선교훈련을 받은 동기생 두 가정과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정이 한 팀을 이루어 방글라데시로 파송된 덕분에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공동체가 주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누리며 사역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속한 팀이 주력해온 사역은 제자훈련, 교회개척, 그리고 교육사역입니다.

제자훈련사역으로 4개월 과정의 비기너 코스를 매년 3회씩 진행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2년 과정의 사역자 코스를 운영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의 교회개척을 돕기 위해 전도팀을 결성해서 매주 전도하고 해마다 의료봉사를 지원했습니다. 매주 5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교회부지를 마련한 교회들의 예배당 건축을 돕고,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십세미나와 사역자 재교육을 위한 스태프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교회의 요청으로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미션홈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보내온 기도제목이 교육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두 곳에 초등학교를 지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첫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다시 기도제목이 올라 왔습니다.

마을에 중학교가 없어 진학할 수 없다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매년 5명을 선발하여 고등교육이 가능한 큰 도시에서 신앙훈련과 과외학습을 병행하는 미션 홈 사역으로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한 달을 집에서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중 싱크대의 물이 흘러서 넘치고 몸이 휘청거릴 만큼 큰 지진도 겪었습니다. 1년 전 부친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할 비행기를 표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던 일도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내는 셋째가 젖먹이일 때 입국해서 2년 동안 매연을 마시며 오토릭샤와 버스를 타고 언어학원과 시장을 다녔고 그 이후 다시 넷째를 낳고 네 명의 자녀들을 돌보며 사역을 이어 나갔습니다. 6년의 1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식년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비행기를 취소했던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빚어가시는 시간들 속에 힘들었던 일은 함께 사역하던 현지인 동역자들의 이탈과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사역자가 두 번째 부인을 얻어 면직을 당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까이에서 살피고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희와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떠날 때는 상실감과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나는 돈

은 잃어도 괜찮지만 사람은 잃고 싶지 않다." 라고 때마다 이야기했던 터라 실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 몇 번이나 선물을 전달할 기회를 놓쳤던 미션 홈 사역자가 코로나로 갑자기 소천 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잊지 않고 전해주려고 늘 현관 앞에 선물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할 기도제목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는 과정 중에 스태프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모금행사였습니다.

환란을 당한 자들을 위해 헌금하는 문화가 없었던 방글라데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섬기시고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아이들의 학업을 어떻게 이어 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인 첫째와 중학생인 둘째, 그리고 초등학생인 셋째는 여름방학 후 휴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안식년 동안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하시고 어머니께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몸도 약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식년 동안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평생 동안 두고두고 곱씹을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의 모토는 '하나님이 여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고척교회에 다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더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와 주일학교를 개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미션홈 졸업생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 25명의 스태프들 모두 영육이 강건하도록
★ 25개의 교회와 24개의 주일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소식

6월

교회

- 월삭새벽기도회 | 1일(수)
- 성령강림절 | 5일(주일)
- 삼위일체주일 | 12일(주일)
- 전도학교 개강 | 16일(목)
- 제20차 천사운동 | 19일(주일)

예배시간 안내

GOCHEOK.PRESBYTERIAN.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은혜대예배당
	3부	오전	11:00	은혜대예배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6:00	은혜대예배당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0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40	세미나실(본관5층)
상담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e-메일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gocheok1004@gmail.com 로 메일 보내주세요.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 1, 2부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 1, 2부(초1-3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지층
소년 1, 2부(초4-6학년)	주일 오전	9:00,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본관B1층)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본관1층)
청년공동체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본관B1층)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절취선

'위드유' 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가정예배 실천표'**를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수거함에 제출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매달 첫째 주일에 추첨하여 3가정에 **[사랑나눔 간식 쿠폰]**을 드립니다.

6월 가정예배 실천표

이 름	
소 속 (교구-목장/부서)	

주 간	실 천 (O로 표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짧은 간증과 소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역대하 2:21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그림 사이에서 서로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8개)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